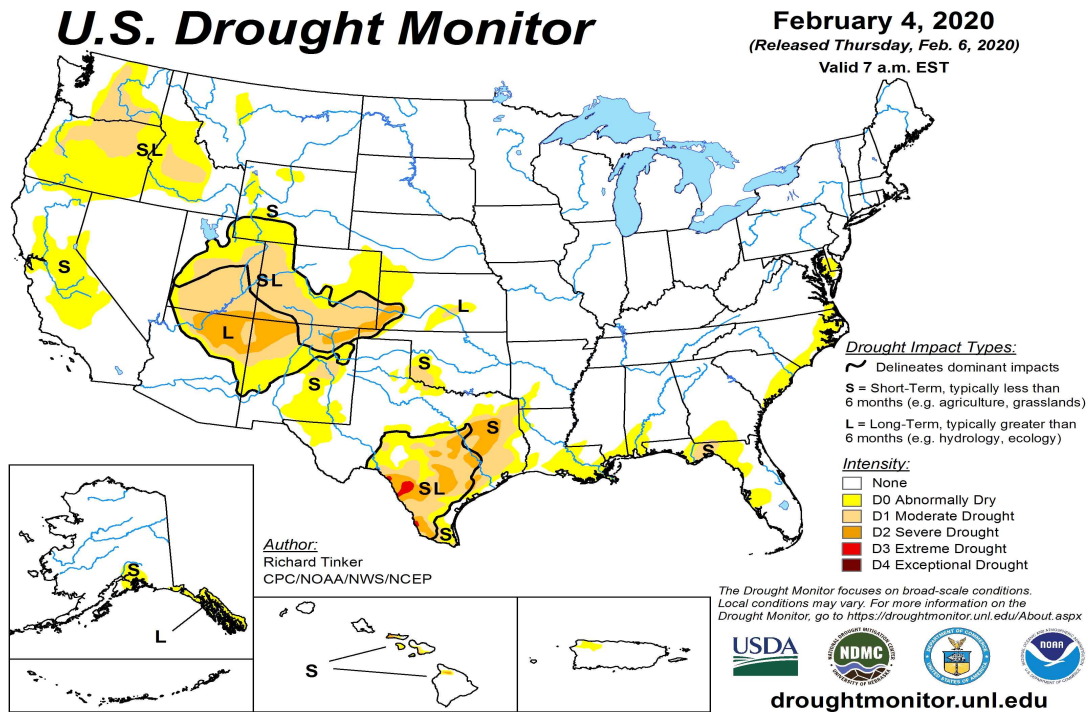


2월 11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7, No. 6)

□ 미국 기후 현황(2/2~2/8)

북서부와 로키 산맥의 북부 및 중부로 흐르는 태평양의 습기가 오레곤 북동부와 워싱턴 서부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 홍수를 일으켰다. 오리건 주의 홍수 피해 지역에서 강수는 폭우로 바뀌기 전에 눈으로 시작되었다. 더 동쪽으로는 2월 6~7일에 남동부 전역에 폭우가 발생했다. 이미 포화된 토양에 떨어진 비 중에 일부는 미시시피 계곡 하류에서부터 남부 대서양 해안 평원까지 넓은 면적에 범람을 촉발했다. 남동부 폭우 이전에는 주 중반에 내린 눈이 로키 산맥과 평원의 남부 구역을 덮었다. 눈, 진눈깨비, 얼어붙은 비를 포함한 겨울철 강수는 나중에 북동쪽으로 오대호 아래쪽 지역 전역과 북동부쪽으로 퍼졌다. 캘리포니아, 사막 남서부 및 오대호 위쪽 지역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다른 지역은 강수량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었다. 그러나 주말에는 한 때의 눈이 북부 평원과 중서부 위쪽 일부를 뒤덮었다. 미국 동부 절반에는 기온이 거의 평년 또는 평년보다 높았지만 태평양 연안에서부터 고 평원까지 많은 지역에서 쌀쌀한 기후가 발달했다. 주간 평균 기온의 수치는 대서양 중부에서는 평년보다 10-15° F 정도 높았고 북부 평원 일부와 미시시피 강에서부터 동해안까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최소 5° F 이상 높았다. 그러나 주 후반에 중서부 위쪽에서는 차가운 공기가 순간적으로 급증하면서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고 이런 현상은 북아이오와까지 먼 남쪽으로 확장되었다. 그밖에 캘리포니아의 샌 호아킨 계곡에서는 주 초-중간에 서리가 발생하여 대체로 2월 4-5일 아침이 가장 추웠다.



□ 세계 기후 현황(2/2~2/8)

■ 유럽: 남부 유럽은 건조한 날씨가 우세했지만, 대륙의 많은 곳들에 광범위한 비가 계속 내렸다. 프랑스와 영국에서부터 동유럽 대부분에까지 또 한 차례의 중간-강한 소나기 (5~65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가 보고되었다. 그 비는 1월초부터 대륙의 많은 곳에서 발달해왔던 계속된 단기 건조를 완화시키거나 제거하여 휴면 중인 겨울밀과 유채를 위한 수분 보유량을 상승시켜주었다. 그러나 장기적인 강수량 부족이 남아 있는 독일 일부에는 비가 더 많이 필요하다 (지역적으로 90일 강수량이 평년의 50 % 미만). 습한 날씨 패턴에도 불구하고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는 건조한 조건이 관찰되었다. 단기 건조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두드러졌고, 60일 강우는 지역적으로 평년의 50 % 미만으로 유지되었다. 유럽의 많은 곳에 구름과 소나기가 있었지만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2~6° C 높았고 주요 재배 지역은 눈 높임이 없어서 더 따뜻한 서부와 남부의 재배 지역에서는 계절을 벗어나 어느 정도 겨울 작물 녹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 호주: 젖는 비 (25~75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가 퀸슬랜드 남부와 뉴 사우스 웨일즈의 많은 지역을 뒤덮어 내려서 동호주에게 아주 필요했던 가뭄 해소를 해주었다. 그 비는 환영을 받았지만 가뭄의 심각성과 긴 기간으로 인해서 건조지 여름작물들의 수확량 전망은 여전히 좋지 못했다. 그러나 관개 작물에 대한 전망은 현재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 최근의 강우는 토양 수분을 직접적으로 상승시켜 주어서 미성숙 관개 작물들에게 유익을 주었다. 그 강우는 또 가뭄으로 고갈된 저수지의 수위를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을 주어, 남은 재배 기간 동안 농민들이 작물들에게 필요한 만큼 충분히 물을 공급해줄 수 있는 가능성을 올려주었다. 주요 여름작물 생산 지역에서 평균 기온은 평년 근처여서 최대 기온은 대체로 중간 썩씨 30도대에서 낮은 40도대 사이에 있었다.

■ 아르헨티나: 지역적으로 내린 강한 소나기가 서부 농업 지역에서 여름 곡물들과 유지류를 위한 수분의 수준을 크게 증가시켰다. 이번 주 가장 심했던 폭우 (50~150 mm)는 코르도바에서부터 북쪽으로 살타를 지나기까지 뻗어 있는 넓은 지역에 내렸지만 부에노스아이레스 남동부와 포모사 동부에서는 비슷한 수준의 누적 강우량을 가진 포켓들이 기록되었을 뿐이었다. 다른 지역들은 최소 10 mm를 기록했는데 엔트레 리오스는 예외로 두 번째 주에 더 건조한 조건을 기록했다. 아르헨티나 중부와 북부에 있는 거의 모든 주요 농업 지역들에서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2~3° C 높았고 낮 최고 기온은 최소 하루는 중간 및 높은 썩씨 30도대까지 올라갔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2월 6일 현재 옥수수과 콩은 둘 다 최소 99 % 파종되었다. 주간 보고서는 대체로 좋은 작물 조건들을 보여 주었지만 지역적으로 어떤 작물들은 최근 있었던 열과 건조로 인한 스트레스 징후를 보였다.



■ 브라질: 광범위하고 지역적인 호우로 인해 브라질 중부 및 북동부의 주요 생산 지역에서 2차 작물 옥수수 및 면화에 대한 전망은 양호하게 유지되었다. 마토 그로소에서는 더 건조한 날씨 포켓 (5~25 mm)이 우세했지만 강우량은 대체로 25~50 mm 범위에 있었다. 정부 보고에 따르면 2월 7일 현재 마토 그로소에서 콩은 45 % 수확되었고 옥수수와 면화는 각각 39 % 및 98 % 파종되었다. 그밖의 지역은 적당한 비 (25~50 mm)가 상 파울로와 미나스 게라이스에서 2차 작물 옥수수는 물론이고 사탕무, 커피, 기타 특용 작물들에게 유익을 주었다. 그 비는 남쪽으로 파라나 북쪽으로 뻗었지만 리오 그란데 도 술에는 더 건조한 날씨가 다시 시작되었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옥수수와 콩의 수확은 2월 3일 현재 4 % 끝났고 남은 작물들의 75 % 이상이 종실비대-성숙기에 도달했다. 2차 작물 옥수수는 7 % 파종되었다고 보고되었다.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는 2월 6일 현재 옥수수의 87 %와 콩의 76 %가 생식-종실비대기에 도달했고 옥수수의 33 %는 이미 수확되었다.